

영문법에서 문장 5형식 개념의 기원 및 적절성에 관한 연구*

한 학 성 **

차 례

1. 들어가기
2. 문장 5형식 개념의 기원과 특징
3. 문장 5형식 개념의 한국 내 수용 과정 및 그 특이점
4. Onions의 술부 5형식 개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맺는말

1. 들어가기

국내 영어 교육에서 문장 5형식 개념이 차지하는 지위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광복 후 상당 기간 동안, 이 개념은 국내 영어 수업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영문법 사항 중의 하나였으며, 시험에도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다.

영어 수업에서 명시적 문법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최근에도 문장 5형식 개념은 여전히 교육되고 있다. 국내에서 출판되는 대부분의 영문법 교재들이 문장 5형식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권 국가에서 출판된 영문법 책이나 영어 교육 관련 교재에서는 문장 5형식 개념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¹⁾ 영어권 국가에서는 별로 다루어지

* 이 연구는 2007년도 경희대학교 교비 연구비 및 연구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지 않는 이 문법 사항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영문법 사항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문장 5형식 개념의 기원과 특징(2절), 그리고 그 개념이 한국 영어 교육에 수용된 과정(3절) 및 그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4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문장 5형식 개념의 기원과 특징

2.1. C. T. Onions의 술부 5형식 개념

문장 5형식 개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영국의 언어학자 C. T. Onions (1873-1965)이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의 편찬에도 참여한 그는 1904년에 최초 발간된 《고등 영어 통사론》(*An Advanced English Syntax*)이라는 책에서 술부(predicate)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문장 5형식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내용의 시원이다.²⁾

그의 제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f. Onions 1904/1929, pp.6-9).³⁾

(1) 술부 제1형식: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술부

예: Day dawns./He died./My hour is come.⁴⁾/The shades of night

-
- 1) Huddleston & Pullum (2005, pp.77f)은 Onions의 문장 5형식 개념을 제4형식과 제5형식의 순서를 바꾸어 “five canonical clause structures”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드문 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 C. T. Onions의 주요한 저술은 이 외에도 *A Shakespeare Glossary* (1911),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1933), *Th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Etymology* (1966, 그의 사후에 출간됨) 등이 있다.
 - 3)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문은 모두 Onions의 원래 예문임.
 - 4) 이 표현은 “My hour has come”과 같은 ‘완료’의 의미이다. 이탈리아어 등에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완료 조동사로 영어의 ‘be’와 ‘have’에 해당하는 어휘 중 하나를 택

were falling.

- (2) 술부 제2형식: “동사 + 술어 형용사, 술어 명사, 술어 대명사”⁵⁾로 이루어진 술부

예: Croesus was rich *or* a king./Many lay dead./I am he./
He became mad./Seeing is believing./To err is human.

- (3) 술부 제3형식: “동사 + 목적어”로 이루어진 술부

예: Cats catch mice./The sea hath⁶⁾ its pearls./Many hands make light work./Nobody wishes to know./He can tell.⁷⁾

* 제3형식 술부를 포함하는 문장의 수동 구문은 제1형식 술부를 가진 문장이 됨.

- (4) 술부 제4형식: “동사 + 2개의 목적어”로 이루어진 술부

예: We taught the dog tricks./I ask you this question./Conscience bids me speak.

* 간접 목적어가 “to + 명사”의 형태로 나타날 때 “to + 명사”는 부가어(adjunct)임⁸⁾

하는 용법이 있는데, 소위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의 경우에는 영어의 ‘be’에 해당하는 어휘를 완료 조동사로 택한다. 영어에도 과거에는 이러한 용법이 있었는데 (cf. Haegeman 1991, p.307), 현대 영어에서 간혹 ‘come’이나 ‘gone’ 앞에 ‘be’ 동사가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용법의 흔적이다.

- 5) Onions 자신은 제2형식을 설명하면서 ‘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Onions가 술어 형용사, 술어 명사, 술어 대명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포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분석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된다.
- 6) 이는 현대 영어의 ‘has’에 해당한다. Onions의 책이 1904년에 출간된 관계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생소한 표현을 예로 사용하기도 한다.
- 7) Onions는 이 문장에서 조동사 ‘can’을 동사로 분석하고, 동사 ‘tell’을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Onions는 목적어의 자격을 명사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Ross (1969)가 조동사를 본동사로 분석한 것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Ross보다 60년 이상 앞선 통찰력을 보이는 것이다.
- 8) Onions의 사후에 B. D. H. Miller가 Onions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하여 출간한 Onions & Miller (1971/1978, p.7)에서는 간접 목적어가 “to + 명사”

- * 제4형식 술부를 포함하는 문장의 수동 구문은 제3형식 술부를 가진 문장이 됨.
- * “We bade him speak” 같은 문장은 제3형식 술부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분석할 수도 있음. (즉 “him speak”를 동사 “bade”의 목적어로 분석.
즉 him speak=that he should speak)

(5) 술부 제5형식: “동사 + 목적어 + 술어 형용사, 술어 명사”⁹⁾로 이루어진 술부

예: Nothing makes a Stoic angry./People called Duns Scotus the Subtle Doctor./They elected him Consul./He counted himself a happy man./

It drove him mad.

- * 제5형식 술부를 포함하는 문장의 수동 구문은 제2형식 술부를 가진 문장이 됨.

2.2. C. T. Onions의 술부 5형식 개념의 특징

앞에서 소개한 Onions의 술부 5형식 개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는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만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방법이다. 이 때 분류의 기준이 되는 필수 성분은 기본적으로 목적어와 보어¹⁰⁾이다. 따라서 부사적 요소들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Onions의 술부 5형식 개념은 Palmer나 Hornby 등의 동사 유형 분류와는 차이를 보인다. Palmer (1938)는 동사의 유형을 27개로 분류하였으며, Hornby (1954/1973)

의 형태로 표현된 구문을 명시적으로 제3형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 9) 제5형식을 설명하면서도, Onions는 ‘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제2형식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술어 대명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10)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Onions가 사용한 용어는 아니나, 술어 형용사, 술어 명사, 술어 대명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보어’라고 칭할 수 있으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는 25개 (하위 유형을 포함하면 69개)로 분류하였는데¹¹⁾, 이들은 선택적 요소를 포함시켜 동사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므로, Onions의 분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¹²⁾

둘째, 이 개념은 보어나 목적어 등과 같은 문장의 주요 성분을 가릴 때 형태(form)보다는 기능(function)을 중시한다. 이는 제2형식에 대한 Onions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제2형식 술부의 구성 요소로 형용사, 명사, 대명사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품사가 다르더라도 (다시 말해 ‘형태’가 다르더라도), 문장 내의 역할이 같으면 (다시 말해 ‘기능’이 같으면)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기능 중심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점을 제3형식에 대한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명사뿐 아니라, to-부정사, 동사, that-절 등도 목적으로 분석함으로써¹³⁾, 역시 기능 중심의 분류를 택하고 있다.

셋째, Onions는 능동태가 수동태로 변화하면 형식도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제3형식의 술부가 수동화되면 제1형식이 되며, 제5형식 술부의 수동 구문은 제2형식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Onions가 술부 5형식 개념을 술부 자체의 고유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문장 내 다른 요소와의 관계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았음을 시사한다.

3. 문장 5형식 개념의 한국 내 수용 과정 및 그 특이점

3.1. 문장 5형식 개념의 한국 내 수용 과정

문장 5형식 개념이 한국 영어 교육에 철칙처럼 자리잡게 된 것은 일제강점

11) Hornby가 편찬한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의 1974년 판 (초판은 1948년 간행됨)에는 동사 유형은 25개로 동일하나 하위 유형은 51개로 분류되어 있다.

12) Close (1977)는 Palmer의 분석을 표층구조상의 어순을 기준으로 한 동사 유형 분류로 보며, Hornby의 분류는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동사 유형 분류로 보고 있다.

13) 이는 기본적으로 그의 ‘상당어’(equivalents) 개념에 따른 것으로, 그의 기능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의 영향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영문법에서 문장 5형식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¹⁴⁾, 일본에 문장 5형식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호소에 이즈키 (1884-1947)이다.¹⁵⁾ 그는 1917년에 최초 출간된 그의 저서 《영문법범론》(英文法汎論)에서 Onions의 5형식 개념을 일본에 처음 소개하였는데, 이후 이 개념은 급속하게 학교 문법에 침투되어 일본 내 중등학교 영문법 교과서의 대부분에 이 개념이 포함되게 되었다 (cf. 이마체키 아즈시 1993).

호소에 이즈키의 《영문법범론》은 그 후 출판사를 바꾸어가며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의 저서를 필자에게 알려준 사나다 히로코 박사에 따르면, 초판본은 현재 일본의 국회도서관에서도 볼 수가 없으며, 1925년 판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고서점 등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대개 1948년 이후에 나온 개정판 정도인데, 한국에는 서울대 도서관에 1926년 판이, 연세대 도서관에 1927년 판이, 고려대 도서관에 1948년 판이, 한국외대 도서관에 1956년 판 등이 소장되어 있다.¹⁶⁾

호소에 이즈키의 영향으로 일본 영어 교육에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은 문장 5형식 개념은 일제강점기 중에 한국의 영어 교육에 그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해방 후 국내에서 출간된 최초의 영문법서로 추정되는¹⁷⁾ 조성식의 《고등영문법》(1949년 청구출판사에서 출간)에

14) 일본에서는 문장 5형식이라는 용어보다는 5문형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15) 호소에 이즈키와 관련한 사항을 알려주신 사나다 히로코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1956년 판 《영문법범론》에 소개된 그의 이력을 보면 그는 1906년에 도쿄외국어학교(현재의 도쿄외대)를 졸업한 후 중학교 교사를 거쳐 오사카고등상업학교(현재의 오사카상대) 등에서 교편을 잡은 것으로 되어 있다.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영국 유학을 했으며, 1935년에 泰文堂에서 발행된 《조지 엘리엇의 작품에 사용된 영국 중부 지방 방언 연구》라는 저서로 1936년에 교토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6) 일본 도호쿠대학의 Eto 교수는 호소에 《영문법범론》의 초판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의 복사본을 필자에게 보내주었는데, 불행히도 이 복사본에는 출판사 및 출간일자가 표시된 부분이 누락되어, 실제로 이것이 초판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수록된 예문 등이 뒤의 개정판에서와는 달리 Onions의 원래 예문과 유사한 것들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 점 및 전체 쪽수(186쪽)가 개정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이 초판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판본을 앞으로 “호소에 초판본(추정)”으로 지칭하겠다.

도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¹⁸⁾ 그 후 국내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영문법 책에 이 개념이 포함됨으로써 Onions의 이 개념은 한국의 영어 학습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문법 사항의 하나가 되게 되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947년 4월 문부성에 의해 전후 최초의 “학습 지도 요령”(총 28쪽)이 마련되었는데, 1958년 2차 개정 때 문장 5형식 개념이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포함되게 되었다 (cf. 이마제키 아쓰시 1993). 이를 계기로 문장 5형식 개념은 일본 영어 교육에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정립되게 되었으며¹⁹⁾,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영어 교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영어과 교육 과정에 문형 개념이 포함된 것은 1973년의 3차 교육 과정에서부터인데²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3차 교육 과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영어 교육에 문장 5형식 개념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일본의 영향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73년의 3차 교육 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7개의 문형, 2학년 과정에서는 11개의 문형, 3학년 과정에서는 15개의 문형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교육 과정에 문장 5형식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17) 한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영문법 책은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영어부 교수를 지낸 이 기룡의 《중등영문전》(1911년 8월 17일 보급서관 발행)이며, 윤치호의 《영어 문법첩경》(1911년 10월 20일 동양서원 발행)은 한국인이 저술한 두 번째 영문법 책이다. 이 두 책에는 문장 5형식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화기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김명배 (2006), 이광린 (1999) 등을 참고할 것.

18) 조성식은 Onions의 예문을 그대로 옮겨 소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제1형식 중 Onions의 원래 예문 “My hour is come”을 “My hour is coming”으로 고쳐 소개하는 것이다. 조성식 스스로 Onions 책의 쪽 번호까지 명기하면서도 이 예문을 고쳐 소개하는 것은 조성식이 이 예문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cf. 주석 4). 그렇다면 주석으로라도 이 점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다. 이 예문은 Onions & Miller (1971/1978)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호소에는 그의 초판본 (추정)에서 Onions의 원래 예를 나름대로 변형시켜 수록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예를 그는 “My time has come”으로 고쳐 수록했다. 호소에는 뒤의 개정판에서는 문장 5형식 개념을 Onions보다 다양하게 다루며, 또 예문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19) Eto (2002)에 따르면, Onions의 문장 5형식 개념은 최근까지도 일본 영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20) 그렇다고 3차 교육 과정에서 문장 5형식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는 않았지만, 중학교 1학년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7개의 문형에 Onions의 제1-제4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5형식은 중2와 중3 과정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음), 이 교육 과정 역시 문장 5형식 개념을 여전히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²¹⁾

3.2. 문장 5형식 개념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태도 및 습득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 영어 교육에 깊이 뿌리내린 문장 5형식 개념의 현재 지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2007년 2학기 서울 소재 K대학과 S대학에 개설된 교양 과목 수강생 147명이었는데 (모두 인문사회계열 전공생이었음), 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문장 5형식 개념을 배워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96.6%인 142명이 배워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국내 영어 교육에서 문장 5형식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장 5형식 개념을 언제 배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42명 중 64.8%가 중학교 때 배웠다고 답하였으며,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답한 학생은 24.6%, 초등학교 이전에 배웠다고 답한 학생은 2.8%였다. 고등학교에서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문장 5형식 개념을 아직도 기본적인 문법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의 절대다수인 95.1%가 문법 시간이나 독해 시간에 문장 5형식 개념을 배운 것으로 답했으며, 영어 공부를 하는 데 문장 5형식 개념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6.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도 43.7%나 되었다. 이는 문장 5형식 개념의 효용성에 대해서 상당수 학생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문장 5형식 개념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60.5%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39.4%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21) 이후 4차 및 5차 교육 과정까지 이와 유사한 문형 개념이 유지되다가, 1992년의 6차 교육 과정에 이르러서는 문형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의사 소통 기능 개념이 등장하였다.

고 대답하였다.

문장 5형식 개념이 영어의 어떤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5.5%의 학생들이 읽기 기능이라고 답했으며, 25.3%의 학생들이 쓰기 기능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비해 듣기와 말하기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2.8%와 3.5%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문장 5형식 개념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보라는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답한 학생의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²²⁾

(6)

형식	구성을 제대로 답한 학생	예를 제대로 든 학생
1형식	85.2%	44.4%
2형식	71.1%	45.8%
3형식	73.2%	47.2%
4형식	66.2%	36.6%
5형식	65.5%	23.2%

위의 결과는 문장 5형식 개념이 기본적인 영문법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터득하고 있는 정도는 대단히 저조함을 보여 준다. (이것이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대상을 고등학생 전체나 일반인들로 확대할 경우에는 제대로 답할 확률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제 예를 제시하는 정도가 극히 저조함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여전히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5형식의 경우 문장 구성에 대한 지식은 다른 형식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예문을 드는 능력은 다른 형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여 한국 대학생들이 제5형식에 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²³⁾ 분명히 배운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능력의 면에서 한

22) 이 질문에 문장 5형식 개념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5명의 학생들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비율은 문장 5형식을 배워본 적이 있는 142명에 대한 비율이다.

23) 본문에 소개된 비율은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 다음에 동사구가 나오는 예문을 제5형식으로 인정하고 계산한 결과이다.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Onions 자신은 동

국의 최상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마저 23.2% 정도만이 실제 예를 들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3. 한국 내 문장 5형식 개념과 C. T. Onions의 문장 5형식 개념 간의 차이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5형식 개념과 Onions의 원래 5형식 개념 간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국내에서는 이 5형식이 ‘문장’의 유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비해, Onions의 원래 개념은 ‘술부’(predicate)의 유형에 관한 것이다. 물론 Onions도 이를 기준으로 문장의 유형을 가릴 수 있다고 하고는 있으므로²⁴⁾ 문장의 유형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개념 자체는 일단 술부의 유형에 관한 것이다. Onions처럼 이를 술부의 종류로 간주할 때는 술부를 포함하지 않는 문장의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를 문장의 형식으로 간주할 때는 주어, 동사 등이 빠진 표현은 문장으로 성립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Goodbye”, “Of course”, “First come, first served”, “One man one vote” 등의 소위 비정형 문장(amorphous sentence, cf. Jespersen 1933, pp.105-106 & Jespersen 1937/1969, pp.79-82)들은 이들 5형식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되므로 문장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사구를 목적 보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을 제5형식으로 분류하지도 않았다. 이들을 제외하고 (즉 술어 명사와 술어 형용사만을 목적 보어로 인정하고) 계산하면, 제5형식의 예를 제대로 든 학생은 19명, 즉 13.4%에 지나지 않게 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19명 중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14명이 ‘make’를 사용하여 예문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역 동사 ‘make’를 등장시켜 목적어 다음에 동사구를 사용한 예도 7명이나 있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 학생들에게는 제5형식을 사역 동사구문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는 Onions의 원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 24) Sentences are classified for purpose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form of the Predicate, which may assume *five* principal forms (Onions 1904/1929, p.6).
cf. Sentenc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orm of the predicate, which may assume any of *five* principal forms (Onions & Miller 1971/1978, p.4).

또한 문장에는 단문, 복문, 중문 등이 다 포함되게 되는데, Onions의 개념은 단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장(sentence)이라기보다는 절(clause)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문장 5형식이라는 용어보다는 Onions가 원래 사용한 술부 5형식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에서는 Onions의 원래 분석과 다른 내용이 통용되기도 한다. Onions는 제5형식의 경우 목적어와 목적 보어 간의 관계에 있어 명사나 형용사로 이루어진 보어만을 목적 보어로 인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들은 제5형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cf. Onions 1904/1929, p.42, Onions & Miller 1971/1978, p.38).

- (7) a. I found him to be a good scholar.
b. They know him to be loyal.

위의 예들에서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to-부정사 구문은 목적어와 함께 that-절 (즉 “that he was a good scholar”, “that he is loyal”)로 대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Onions는 위의 예들은 제3형식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지각 동사를 포함하는 예들도 Onions는 제5형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cf. Onions 1904/1929, pp.42-43, Onions & Miller 1971/1978, pp.38-39).

- (8) a. Who saw him die?
b. No one heard him come in.
c. The prisoner felt the snake crawl over his arm.

Onions는 위의 예들에서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원형 부정사구 (혹은 동사구)를 부사적 요소로 본다. 이는 Onions가 이들 예문을 최소한 제5형식으로 보지는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 구문 등에서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원형 부정사구 (혹은 동사구)를 목적 보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호소에 이즈키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는 그의 책 (1917/1956 p.46, p.181)에서 다음 예들을 목적 보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즉 제5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9) a. He watched him enter.
 b. I hear the church-bells ring.
 c. I will make her stand by her husband.

호소에가 초판본 (추정)에서부터 지각 동사 및 사역 동사 구문에 등장하는 동사구를 목적 보어로 분석하였음을 감안할 때 (p.72),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목적 보어 및 제5형식 개념은 전적으로 호소에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²⁵⁾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제2형식과 제5형식을 설명함에 있어 보어 (compl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Onions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Onions는 단지 술어 형용사(predicate adjective), 술어 명사(predicate noun) 혹은 술어 대명사(predicate pronoun) 등의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이 역시 Onions가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 구문을 5형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자료가 된다. 왜냐 하면,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 구문에서 목적어와 서술 관계를 이루는 요소는 술어 형용사나 술어 명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구 혹은 동사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Onions의 문장 5형식 개념을 일본에 최초로 소개한 호소에는 그의 저서 초판본 (추정)에서부터 이들을 보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들을 보어로 칭하는 것은 호소에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25) 박술음 (1981, p.54)도 동사구를 내포하는 사역 구문을 제5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26) Onions는 “He can tell”과 같은 문장을 제3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즉 Onions는 이 문장에서 동사 ‘tell’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호소에는 초판본 (추정)에서부터 이러한 예문을 제3형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호소에는의 견해에 따라, 이런 유형의 문장을 제3형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문장 5형식 개념은 Onions의 원래 개념이라기보다는 호

4. Onions의 술부 5형식 개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²⁷⁾

4.1. 술부 5형식 개념의 문제점

4.1.1. 분류 기준의 일관성 문제

2.2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Onions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기능에 입각한 분류이다. 예를 들어 제2형식의 경우 보어의 자격으로 명사뿐 아니라 형용사와 대명사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요소의 품사보다는 해당 요소의 문법적 역할 (즉 기능)을 술부 형식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제3, 제4형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3형식의 경우 명사뿐 아니라 동사구, 절 등을 모두 목적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4형식의 직접 목적어의 경우도 명사뿐 아니라 동사구나 절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형식의 경우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구도 역시 목적어로 분석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Onions의 분석이 기능에 입각한 분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제4형식과 관련해 Onions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Onions 1904/1929, p.8).

- (10) a. I gave him the money. (제4형식)
 b. I gave the money to him. ('to him'이 부가어이므로 제3형식)

(10a)의 'him'과 (10b)의 'to him'은 기능상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에 이끄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Onions의 예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소개하고 있는 조성식 (1949)에서도 이 예문은 누락되어 있다. 이는 조성식이 이 예문을 제3형식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7) 앞 절에서 우리는 Onions의 5형식 개념과 호소에 이끄는 5형식 개념 사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Onions와 호소에 양 측에 모두 적용된다.

이를 다르게 분석하는 것은 (10b)의 ‘to him’이 전치사 ‘to’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0a)의 ‘him’은 NP임에 비해 (10b)의 ‘to him’은 PP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해당 요소의 문법적 기능보다는 품사, 즉 형태를 중시하는 분석으로서, 기능 중심의 분석이라는 Onions 분석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Onions의 술부 5형식 개념은 분류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2. 기능 중심 분석에서 ‘동사’라는 형태 중심 용어 사용

Onions가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품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형태’에 관한 것이다. Onions의 분석에서는 동사라도 그 기능에 따라 목적어도 될 수 있으므로,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기능 중심적 분석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Onions의 분석은 다음에서와 같이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11) John is fond of Mary.

Onions의 분석에서는 위의 문장을 ‘be’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이유로 제2형식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문장은 의미상으로 “John likes Mary”와 동일하며, 따라서 제3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Onions가 기능 중심적 관점에서 그의 문장 5형식 이론을 전개하면서도, ‘동사’라는 지극히 형태 중심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사’라는 형태 중심적 용어를 기능 중심적 용어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4.1.3. 중복성 문제

Onions는 다음 문장을 제5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Onions 1904/1929, p.9).

(12) The Court declared him a traitor. (제5형식)

그러나 그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 문장은 제3형식이 되어야 한다.

(13) The Court declared that he was a traitor.

이는 “that he was a traitor”가 동사 ‘declared’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The Court declared him a traitor”를 제5형식으로 분석하는 Onions의 분석은 “him a traitor”의 관계를 일종의 주술 관계(predication)로 인정하면서도 독립된 통사적 단위로 인정하지 않는 분석이다.

그러나 Onions는 다음 문장을 제3형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4) Conscience bade him speak. (Onions 1904/1929, p.9)

이는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5) Conscience bade that he should speak.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him speak”를 하나의 독립된 통사적 단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Onions의 입장이다. ‘him’과 ‘speak’ 사이의 주술 관계를 인정해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의 문장을 제3형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같은 논리가 왜 제5형식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이다.

제5형식 문장들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하면, 모든 제5형식 문장들은 제3형식 문장이 되게 된다 (cf. 배영남 2000). 이를 별도의 형식으로 상정한 Onions의 분류는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중복성(redundancy)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을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Onions의 제5형식 개념은 기본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구성소 안에 있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마치 제2형식과 같은 관계를 보일 경우에 한한다. 이들 간의 관계가 제1형식이나 제3형식 혹은 제4형식의 관계를 보일 때는 모두 제3형식으로 간주한다. 만일 목적절의 내부 관계를 형식에 반영하려 한다면, 제1-제4형식 모두를 반영하거나, 하나도 반영하지 말아야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Onions처럼 이 중 하나만을 별도의 형식으로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 흠결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5형식을 별도의 형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대두된다고 하겠다.

4.1.4. 주어 없는 술부의 분석 문제

Onions의 5형식에는 주어와 동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주어가 없는 표현의 형식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Onions가 분류하고자 한 것은 문장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술부의 유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은 주어를 포함하지 않는 술어는 있을 수 없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Onions의 다음 예에 주목하도록 하자.

(16) It is hard to do right. (Onions 1904/1929, p.7)

Onions에 따르면,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제2형식으로 간주한다.

(17) To do right is hard.²⁸⁾

이제 다음의 예를 보자.

(18) John seems happy.

Onions에 따르면 이는 당연히 제2형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다음 예문은 어떻게 될까?

(19) John seems to be happy.

위에서 동사 ‘seem’과 문법적 관계를 맺는 요소는 “John to be happy”이다. 이는 위의 문장이 다음과 같은 문장과 의미적으로 동일한 데서도 확인된다.²⁹⁾

(20) It seems that John is happy.

그렇다면 위에서 “that John is happy”는 ‘seem’과 어떤 문법적 관계를 갖는 것일까? 만일 주어라면 이 문장은 제1형식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에서 “it is hard to do right”라는 문장을 분석할 때 행한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르게 되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것은 Onions의 체계 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생성 문법 이론에서처럼 ‘that’ 이하를 동사 ‘seem’의 보충어로 본다면 (cf. Chomsky 1981), 이 문장을 Onions의 5형식 체계 안에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진다. 이는 Onions가 주어를 문장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고 5

28) Onions는 다음 예문은 제1형식으로 분석한다.

There was peace. = Peace was(동사) there(부가어).

29) Onions (1904/1929, p.22)는 “John seems to be happy”에서 ‘to- 부정사’를 부사적 요소로 간주해 부가어(adjunct)로 분석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제2형식일 수는 없고 제1형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는 표면상의 주어인 ‘John’과 ‘to-부정사’ 간의 주술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형식 개념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Onions의 5형식 개념이 기본적으로 술부의 유형에 대한 것임을 간주할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Onions의 분류가 술부의 유형에 관한 것이라면 주어의 유무와 관계 없이 술부만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Onions가 5형식 분류에 주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1.5. 부사적 필수 요소의 문제

Onions의 분석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필수적 성분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부사나 전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Onions의 분석에서는 모두 부가어로 간주되며, 형식의 판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에서 'be' 동사 다음에 나오는 요소는 보어가 될 수 없다.

(21) This is for you.

그런데 위의 문장은 다음 문장과 형식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2) This is yours.

(21), (22)에서 'be' 동사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기보다는 'be' 동사 앞 뒤의 요소를 연결해주는, 즉 계사(copula)의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문장은 형식상 동일한 관계를 나타내는 셈인데, 이 둘을 같은 형식으로 다루지 못하는 Onions의 체계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면에서 이는 Onions가 기능 중심의 분석을 택하면서도, 은연중에 형태를 기능에 혼합시켜 사용하는, 즉 그의 기능 중심 분석이 철저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 (cf. 4.1.1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사에 따라서는 부사적 요소를 필수 요소로 취하는 것도 있다. 'put'

이 대표적인 예인데, 다음과 같은 문장을 Onions의 분석에서는 몇 형식으로 보아야 할까?

(23) He put the car into the garage.

위의 예에서 ‘put’은 목적어 NP와 처소격 PP (혹은 부사)를 필수 요소로 요구하는 동사이다. 그런데 이를 Onions의 체계 안에서 제4형식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 이는 Onions가 제4형식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두 요소를 갖는 구문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23)에서 PP “into the garage”를 통상적 의미의 간접 목적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제4형식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23)을 제3형식으로 분석할 수도 없다. 왜냐 하면, 다른 제3형식 문장들과 달리 (23)에서 PP가 없으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24) *He put the car.

이러한 문제는 Onions가 술부의 형식을 결정하는 문장의 주요 성분에 부사적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Onions의 체계 안에 부사적 요소를 필수 요소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4.2. 개선 방안

이제 앞에서 논의한 Onions 개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하자.

4.2.1. 분류 기준의 일관성 문제와 부사적 필수 요소의 문제

4.1.1절에서 논의한 분류 기준의 일관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명사구만으로 이루어진 간접 목적어와 “to + 명사구”로 이루어진 간접 목적어를 문장 형식 분류와 관련하여 동일한 요소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Onions는 간접 목적어라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두 요소를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앞의 경우는 제4형식, 뒤의 경우는 (“to + 명사구”를 부가어로 분석하여) 제3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문에 Onions의 분석이 기능 중심의 분석이면서도, 이 경우에만은 형태 중심의 성격을 띠게 되어 분석의 일관성이 훼손되게 된 것이다.

Onions가 “to + 명사구”를 부가어로 분석한 것은 전치사 ‘to’ 때문이다. Onions는 이를 일종의 부사적 요소로 보고 부사적 요소는 문장의 필수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문형 분석을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to + 명사구”를 포함하는 문장을 제4형식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형태상 부사적 요소로 보이는 “to + 명사구”를 문장의 필수 요소인 간접 목적어로 분석하면 (다시 말해 명사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간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면), 우리는 Onions 분석에 내재되어 있는 분류 기준의 일관성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4.1.5절에서 지적한 부사적 필수 요소의 문제와 관련 하여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된다. 즉 우리는 Onions 분석에 내재되어 있는 분류 기준의 일관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태적으로는 부사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문장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4.1.5절에서 제기된 문제도 함께 해결한 셈이 된다. 따라서 부사적 요소를 필수 요소로 요구하는 술어들을 문장 형식 분류에 포함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부사적 요소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 명사구”, 즉 PP가 보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다음 문장은 제2형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25) This is for you.

기존의 Onions의 분석에서는 제2형식을 이루는 보어의 자격은 술어 명사, 술어 형용사, 술어 대명사에 국한된다. 따라서 위의 문장과 같이 전치사구나 부사적 요소가 ‘be’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경우에는 제2형식으로 분류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사적 요소도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위의 문장을 제2형식으로 분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다음 문장에서 부사적 요소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26) He put the car into the garage.

Onions의 기존 5형식 이론에서는 (26)과 같은 문장을 분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단 부사적 요소를 필수 요소로 요구하는 술어를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26)과 같은 문장도 분석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26)에서 “into the garage”가 수행하는 기능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이와 관련해 ‘처소 보어’(locative compl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26)에서와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는 ‘처소 보어’를 취하는 동사로 간주하고, 이를 형식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4.2.2 기능 중심의 분석에서 ‘동사’라는 형태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

Onions가 기능 중심적 관점에서 그의 5형식 이론을 전개하면서도 ‘동사’라는 형태 중심적 용어를 버리지 못한 것은 그의 기능 중심적 사고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장에서는 다음에서와 같이 목적어를 취하는 형용사 (소위 타형용사, transitive adjective)의 경우를 분석하는 데 애로가 있음도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7) John is fond of Mary.

그런데 Onions의 분석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동사(phrasal verb) 구문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28) John rang up his sister.

(27)에서는 'is fond of'가 'Mary'라는 목적어를 취하며, (28)에서는 'rang up'이 'his sister'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 때 'is fond of'와 'rang up'을 '동사'라고 칭하기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술어'(predic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동사뿐 아니라 'is fond of'나 'rang up' 등에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Onions의 체계에서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 '술어'라는 용어 자체가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Onions의 기능 중심적 분석을 더욱 철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함께 얻게 해 준다.

4.2.3. 중복성 문제

Onions의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중복성의 요체는 제5형식이 과연 독립된 문장 형식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4.1.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5형식 문장은 제3형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목적어와 목적 보어 간에 어떤 통사적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 문법 이론에서는 작은 절(small clause) 이론이 제시되어 있고 (cf. Williams 1975), 또 그 이전에는 Jespersen이 'nexus'라는 개념으로 이들 간의 통사적 관계를 표현한 바도 있다. 따라서 Onions의 제5형식을 제3형식으로 분석하는 데는 현대 문법 이론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또한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이루는 일종의 종속절 개념으로 분석하면, 이 종속절 내부의 주술 관계가 특별히 제2형식의 관계를 보여야 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렇게 Onions의 문장 5형식 개념에서 제5형식을 제3형식으로 분석하고 제5형식 자체는 제거해 버리면, 그 체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중복성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그런데 제5형식은 3.2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어 교육 효과면에서도 그 습득도가 대단히 미미하다. 따라서 제5형식을 제거하는 것은 영어 교육면에서도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2.4. 주어 없는 술부의 문제

심층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 표층 구조만을 가정하면, 최소한 영어에서는 주어 없는 술부의 경우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물론 ‘methinks’ 등의 고어 투 표현의 경우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생성 문법 이론에서는 소위 확대 투사 원리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최근에는 이를 EPP라는 자질로 설정함 cf. Chomsky 1995)에 의해 표면적으로 주어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언어적 특성을 포착하기도 한다.

현대 통사론에서 주어가 없는 경우란 심층 구조를 가정할 때 드러난다. 인상 동사(raising verb) 혹은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 등은 심층 구조에서는 주어 자리가 빈 채로 나타나나, 주격 점검 등을 위해 보충어 자리에 있던 명사적 요소가 표면상의 주어 자리로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Onions의 체계는 심층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층 구조에서 주어가 빈 자리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Onions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Onions의 분석을 문장 형식의 분류가 아니라, 술부 형식의 분류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술부에 주어가 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주어진 술부가 목적어나 보어를 취하는지, 그리고 취한다면 몇 개를 취하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4.2.5. 수정 술부 5형식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Onions의 문장 5형식 개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우리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한다.

(29) 첫째, 이는 문장의 유형이 아니라 술부의 유형이다.

둘째, 이는 철저하게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셋째, 이는 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수와 성격에 따른 분류이다.

첫째 원칙은 Onions의 5형식 개념을 ‘문장’의 유형에 관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둘째 원칙은 Onions의 개념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기능’과 ‘형태’의 혼재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실제 분류는 셋째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먼저 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수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진다 (즉 0/1/2 등).³⁰⁾ 또한 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의 기능에 따른 분류도 함께 이루어진다 (예: 보어/목적어 등). 이에 따른 우리의 분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0) 수정 술부 5형식³¹⁾:

술부 제1형식: 술어(predicator)만으로 이루어진 술부

예: He lied.

She died.

They arrived.³²⁾

30) Whitehall (1956, pp.38-39)은 우리가 뒤에서 설정하는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보충어의 수에 따른 분류만을 행하였다. 그는 보충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를 포함하는 문형을 ‘sentence situation I’, 보충어 하나를 취하는 동사를 포함하는 문형을 ‘sentence situation II’, 보충어 2개를 취하는 동사를 포함하는 문형을 ‘sentence situation III’로 명명하였다.

31) 뒤에서 언급하는 제4A형식과 제4B형식을 하나로 묶게 되면, 수정 술부 4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생성 문법 이론에서의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분석을 채택한다면, 비대격 동사는 심층 구조에서 보충어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보충어 수가 1이 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이 분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즉 표층 구조에서 일반 자동사 구문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비대격 동사 구문은 일반 자동사 구문과 같이 제1형식에

술부 제2형식: “술어 + 보어”로 이루어진 술부

- 예: He is rich. (rich = 술어 보어)
 She is a doctor. (a doctor = 술어 보어)
 This is for you. (for you = 술어 보어)
 It is on the table. (on the table = 처소 보어)
 Mary is upstairs. (upstairs = 처소 보어)

술부 제3형식: “술어 + 목적어”로 이루어진 술부

- 예: He opened the door. (the door = 목적어)
 He thinks that you are right. (that you are right = 목적어)
 John is fond of Mary. (is fond of = 술어, Mary = 목적어)
 John rang up his sister. (rang up = 술어, his sister = 목적어)
 I consider this a lie. (this a lie = 목적어)³³⁾
 She found the task impossible.
 (the task impossible = 목적어)
 They made him president. (him president = 목적어)³⁴⁾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에 비해 “It seems that John is happy”와 같은 문장은 ‘that’ 이하를 동사 ‘seem’의 보어로 보아 제2형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It seems so”에서 보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층 구조와 표층 구조를 구분하는 생성 문법 이론적 분석을 그 둘을 구분하지 않는 Onions 분석 안에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33) Jespersen (1937/1969, p.42)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begin{array}{ccccc} \underline{I} & \underline{\text{consider}} & \underline{\text{this}} & \underline{\text{a}} & \underline{\text{lie}} \\ S & V & O(S_2) & P & \end{array}$$

이에 따르면 ‘this’와 ‘a lie’가 함께 ‘O’ (즉 목적어)를 이루며, 목적어 내부 구조는 주어와 술어, 즉 주술 관계 (이를 Jespersen은 ‘nexus’로 칭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해당 문장을 제3형식으로 분석하는 우리의 입장과 동일하다.

34) 이 문장도 Jespersen (1937/1969, p.42)에서 인용한 것으로, Jespersen은 이 문장에서 사역 동사 ‘make’ 다음에 나오는 ‘him’과 ‘president’가 함께 목적어를 이루는

술부 제4A형식: “술어 +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술부

예: She gave me her e-mail address.

(me = 간접 목적어, her e-mail address = 직접 목적어)

She gave it to me. (it = 직접 목적어, to me = 간접 목적어)

She promised me that she would come.

(me = 간접 목적어, that she would come = 직접 목적어)

술부 제4B형식: “술어 + 목적어 + 처소 보어”로 이루어진 술부³⁵⁾

예: He put the car into the garage.

(the car = 목적어, into the garage = 처소 보어)

5. 맺는말

본고에서는 문장 5형식 개념의 시원을 규명하고, 그 개념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문장 5형식 개념과 C. T. Onions의 원래 개념 간의 차이도 규명하였다. 아울러 Onions의 원래 5형식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모색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Onions가 지향하는 ‘기능’ 중심의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부사적’ 필수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론적 중복성을 야기하는 제 5형식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부사적 필수 요소를 요구하는 술어를 재배치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5) 이를 제5형식으로 명명할 경우 기존의 제5형식과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4B형식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제4A형식의 간접 목적어와 제4B형식의 처소 보어가 궁극적으로는 직접 목적어가 도달하는 대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둘 간에 유사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였다. 이는 기존의 5형식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것이었다. 그 결과 형식의 수는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설명력은 확장시켜 전체적으로 이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용 문헌

- 교육부 《초, 중, 고등학교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 기준 (1946-1997)》. 2000.
- 김명배 《개화기의 영어 이야기》,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6.
- 박술음 《학습 영문법》, 을유문화사. 1981.
- 배영남 “영문법 교육과 5형식 이론”, 《어학교육》 v.29, pp.51-65. 2000.
- 윤치호 《영어문법첩경》, 동양서원. 1911. (1983년 탑출판사에서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29책으로 영인 간행.)
- 이기룡 《중등영문전》, 보급서관. 1911. (1983년 탑출판사에서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29책으로 영인 간행.)
-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1999.
- 조성식 《고등영문법》, 청구문화사. 1949.
- 이마제키 아즈시(今關 敦) “五文型 指導についての 一考察”, 《日本英語教育史研究》 v.8, p.202-203. 1993.
- 호소에 이즈키(細江逸記) 《英文法汎論》(*An Outline of English Grammar*), 泰文堂. 1917/1956.
- Chomsky, 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1981.
- Chomsky, N. *The Minimalist Program*, Mass: MIT Press. 1995.
- Close, R. A. “An Analysis and Arrangement of Verb Patterns”, *ELT Journal*, 32, 1, pp.23-32. 1977.
- Eto, H. “C. T. Onions's (1873-1965) Undiminished Influence on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Japan”, *NAAHoLS Newsletter*. 2002.
- Haegeman, L.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xford: Blackwell. 1991.
- Hornby, A. S.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3rd edition, Oxford: Oxford UP. 1948/1974.

- Hornby, A. S. *A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Oxford: Oxford UP. 1954/1973.
- Huddleston, R. & G. K. Pullum *A Student's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Jespersen, O.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3.
- Jespersen, O. *Analytic Syntax*, New York, NY: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37/1969.
- Onions, C. T. *An Advanced English Syntax*, 5th edition,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04/1929.
- Onions, C. T. & B. D. H. Miller *Modern English Syntax*,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1971/1978.
- Palmer, H. E. *A Grammar of English Words*, London: Longman, Green & Co. Ltd. 1938.
- Ross, J. R. "Auxiliaries as Main Verbs," In W. Todd, ed., *Studies in Philosophical Linguistics*, series 1, pp.77–102, Evanston, IL: Great Expectations.
- Whitehall, H. *Structural Essentials of English*, New York, NY: Harcourt, Brace and Company, Inc. 1951/1956.
- Williams, E. "Small Clauses in English," in J. P. Kimball, ed., *Syntax and Semantics IV*, pp.249–273,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and Adequacy of the Notion of
the Five Forms of the Sentence in English Grammar

Hak-Sung Han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most Koreans learn about English grammar is the notion of the five forms of the sentence. This notion, however, is not well-known to native English speakers and is rarely found in English grammars published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In this paper, I attempt to trace the origin of this notion and the course it took to become a kind of iron-law in the teaching of English grammar in Korea. In doing so, I also show that the way this notion is commonly interpreted in Korea exhibits not an insignificant divergence from what its originator intended. I further investigate the conceptual and empirical problems with this notion, particularly the lack of consistency in its approach to the classification of predicates, and suggest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Key words : five forms of the predicate, English grammar, C. T. Onions
술부 5형식, 영문법, C. T. 어니언스

논문접수일: 2008. 11. 10

심사완료일: 2008. 12. 10

게재확정일: 2008. 12. 15

이름: 한 학 성

소속: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주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교수회관 201호

전화: 02-961-0436

이메일: hakhan@khu.ac.kr